대경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주요내용과 과제

이상준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sjoonee@korea.kr

지역산업 재도약을 위한 비전의 설정과 계획 수립

우리나라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1990년대 후반 당시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세를 보임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역산업 육성에 한계를 보였던 만큼 중앙정부에 의한 여러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대구·경북지역에 큰 힘이 되어 왔다.

이번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그간 '선도산업-전략산업-특화산업'의 틀로 진행되어 오던 지원사업의 체계가 변화되고, 지역의 산업환경도 변화함에 따라서 향후 지역산업을 이끌 수 있는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검토와 지역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 설정과 계획 수립을 기획하게 되었다.

기존의 대경권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은 IMF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매출이 하락하였고, 모바일산업의 경우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었으며,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에도 차세대 생산라인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도 아직 시장화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신성장산업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위상 또한 동남권과의 격차가 심해지고, 충청권에 우위를 상실하는 등 타 광역권에 열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경권의 재도약을 위해 "지식경제기반의 글로벌 신성장거점 육성"을 비전으로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유망업종의 미래 성장동력화를 목표로 하였다.

대경권 2단계 선도산업과 세부프로젝트

2단계 선도산업과 관련하여 대경권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그린에너지산업과 IT융복합산업, 대표 주력산업으로는 스마트기기부품산업과 첨단융합소재산업을 선정

하였다. 그린에너지산업은 태양광(장비중심)과 연료전지 프로젝트, IT융복합산업은 의료기기(치료/헬스케어기기중심)와 실용로봇 프로젝트, 스마트기기부품산업은 스마트자동차부품과 스마트모바일 프로젝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첨단융합소재산업은 첨단금속·세라믹소재와 하이테크섬유소재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성장동력산업은 기존의 1단계 선도산업을 그

▶ 대경권 선도산업 선정결과

대로 이어받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간 3년 내 상용화에 걸맞지 않은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바 이번 계획에서는 상용화를 고려한 유망상품의 선정을 통해 시장화 성공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표주력산업의 경우 기존 주력산업의 위상변화를 고려하여 스마트자동차부품산업을 새로 포함하였고, 소재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각 산업간의 유기적인 동반성장의 틀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들 산업의 선정과 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과 중앙정부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

세계경제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지식기반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산업 또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대경권은 주력산업의 경우 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특화발전 혹은 구조고도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 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시장화 진입을 못한 단계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강대국들과의 경쟁에 처해 있고 중국 등의 후발주자들 또한 IT, 그린에너지, 바이오 등의 주요 산업군에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술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경권의 경우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나 대학역량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핵심 R&D 관련 기관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우수인재들마저 역내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전략산업 및 선도산업 육성,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언스파크 형태의 성장거점개발을 통해 지원되어 왔다. 그러나 10여년간 추진해온 사이언스파크 형태의 지역성장 모델이 완전히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것은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핵심 R&D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핵심 사이언스파크들은 그 중심에 대학과 역량있는 연구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핵심 대학들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산업화단계의 R&D개발 위주의 지원정책이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쟁무대는 글로벌화되었고 지역이 세계무대에서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R&D기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향후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에서는 지역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